
IV. 결론 및 시사점

현재 적용 중인 IFRS 4 Phase I 회계기준의 문제점은 자산과 부채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회계적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IFRS 4 Phase II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더욱 투명하고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IFRS 4 Phase II는 장래이익을 부채로 표시한 후 보장서비스 제공에 비례하여 천천히 인식하도록 하고, 이차역마진 등 장래 예상되는 결손은 즉시 손실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자본 감소가 예상된다.

만약 현행 국내 지급여력평가제도와 같이 재무회계인 IFRS 4 Phase II에서 산출한 자본에 합산항목과 차감항목을 반영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한다면 국내 보험회사의 RBC 비율도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6년 1월에 시행한 EU Solvency II의 경우에는 보유계약의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장래이익을 가용자본 중에서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미납입보험료의 장래이익(EPIFP)에 대해서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 MCCRSR 또한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다만 부의 준비금과 해지환급금 부족액을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한도를 적용하여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EU Solvency II는 장래이익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고 유동성 위험은 정성평가에서 모니터링하는 반면 캐나다 MCCRSR은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되 인정 범위는 한정하여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방식들을 국내 생명보험회사에 적용한 결과 IFRS 4 Phase II에서 산출한 자본을 일부 조정하여 가용자본을 계산하는 경우 RBC 비율 150% 미만은 13개

회사, 100% 미만인 9개 회사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 Solvency II와 같은 방법으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경우 RBC 비율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캐나다 MCCR과 같이 산출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재무회계상 자본을 일부 조정하여 가용자본을 계산하는 경우 RBC 비율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EU Solvency II 또는 캐나다 MCCR과 같은 방법으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경우 오히려 RBC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감독당국은 EU와 캐나다 같이 이미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와 영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시가기준 지급여력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 장래이익을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IFRS 4 Phase II는 감독자 관점의 회계가 아닌 투자자 관점의 회계라는 점에서 감독목적의 지급여력평가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여러 국가에서 지급여력평가제도로써 벤치마킹하는 EU Solvency II, 캐나다 MCCR은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식한다. 이는 지급여력평가의 목적이 예상 외 손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독 목적과 부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 EU나 캐나다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캐나다 MCCR 방식은 국내 생명보험회사에 상당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EU Solvency II 방식이 제도의 정착 측면에서 보다 적절한 대안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EU Solvency II 방식을 적용한다면 유동성과 관련된 위험을 정성평가에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지급여력평가의 목적과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 국내 도입 시 가용자본 산출은 EU Solvency II 또는 캐나다 MCCR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 보험산업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캐나다 MCCR 방식은 도입 시 국내 생명보험회사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EU Solvency II 방식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